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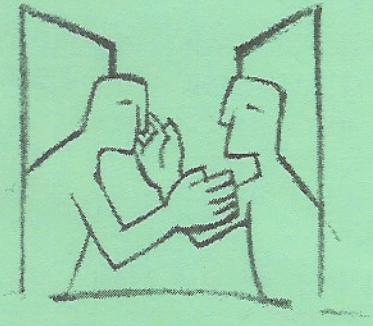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
제27권 31호 (다해) 2007-7-1

[묵상]



벽 허물기

따스하고 편안한 물질의 벽을 허물고
끼리들만 사랑하는 애착의 벽을 허물고
나만 고집하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서
비워서 얻는 더욱 충만한 삶을 찾아갑시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 (4단계 7월10일까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7월19일부터)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마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Organ Donor를 위하여
특전미사	(생) 홍덕 스텔라, 민석준 토마스와 미예, 김풍길 바오로
주 일 학생미사	(생) 현제니퍼, 현제씨카
주 일 낮 미사	(연) 김찬삼 도마, 김정희, 박인금 마리아, 김주일 미카엘 황지엽 요셉, 손석조 마리아, 최복덕 마리아, 이현호 요한 최병기 요셉과 정요임 안나, 김인영 베드로, 테니스웨이 김창배 파스칼, 이영자 마리아, 김혁기 요한 (생) 이필주 바오로, 박지상 아우구스틴, 박원영 요셉, 정상수 이미령 엘리사벳, 이중민 요셉, 이중원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박토니와 재훈 제임스가정, 육성민 요한과 유지은 가정 정순석 레오 가정, 토렌스 서 3반 반원들을 위하여 남성 제27차 푸르실로 봉사자와 수강자들을위하여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권 19,16ㄴ, 19-21

화답송 ◎주여 당신은 나의 기업 이오이다.
<전례성가 83 연중 제13주일>
◎주여 나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몸이오이다.
야훼께 야피오니, “당신은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기업, 내 잔의 몫이시니,
내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깨달음을 내게 주신 야훼님을 기리오니,
밤에도 이 마음이 나를 일깨우나이다.
주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오른편에 계시옵기 흔들리지 않으오리다.◎
◎그러기에 내 마음 즐겁고, 영혼은 봄날고,
육신 마저 편안히 쉬리오니,
내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이다.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아니버려 두시리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릿할 기꺼움을, 당신 오른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 주시리이다.◎

제 2독서 갈라티아서 5,1.13-18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 음 루카 9,51-62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83	208
봉헌	258	254, 272
성체	He Knows My Name	285, 307
파전	372	241

✧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12) ✧

그때 대주교가 말했다. “기도합니다.” 모든 참석자가 마지막 기도를 바치기 위해 일어섰다. 예수님께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 하셨다. “그녀의 기도를 들었느냐? 이제 알겠느냐? 그녀는 한번도 내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녀는 한번도 내가 준 선물에 감사하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람들과 또한 그녀를 위한 선물로서 하늘로부터 내 신성을 보잘것없는 인성에 가져왔다. 그녀는 한번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 적이 없다. 오로지 요구 사항만을 계속 나열할 뿐이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거의 모두가 내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다.

사랑에서 나는 죽었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나는 부활했다. 그후로 사랑에서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기다린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의 사랑이 필요하고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영혼을 위한 이 장엄하고 극히 본질적이고 의미심장한 순간에 내가 ‘사랑을 구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하고 청하고 구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분께 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정말 깨달을 수 있는가? 더욱 기막힌 것은, 사랑 중의 사랑이신 분, 영원한 봉헌으로 당신 자신을 주신 유일한 사랑이신 분을 만나러 가는 것을 우리가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주교가 마침 강복을 주기 위해 나오자,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말씀하셨다. “집중해라,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주의해서 보아라. 너희는 거룩한 성호 대신에 그저 ‘찍어진’ 십자 표시를 한다. 기억하라, 이 강복은 너희가 사제의 손에서 받는 마지막 강복이 될 수도 있다. 이 성전을 나간 뒤 어찌면 죽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다른 사제에게서 강복을 받을 기회가 있게 될지 어떨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축성된 손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의 이름으로 강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이 네 일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존경과 흠숭하는 마음으로 십자성호를 그어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려 하지도 않고 또 거룩한 미사에 매일 참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 버리는 공로가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는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30분 일찍 일어나 30분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과 은총을 받으려는 그 작은 노력을 하지 않는가?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그리고 그밖에도 많은 사람이 아주 사소한 핑곗거리를 대면서 일요일에 미사를 빠진다. 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서, 아니. 아주 많아서 그래서 미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식사 초대받아서, 영화 약속이 있어서 등등.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가거나 부부가 서로 교대로 아이들을 챙긴다.

◆ 카탈리나 리바스 / 다음 주에 계속

주님 따르기

신앙생활도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몸이 지치기 마련이고 자칫 영적인 생활도 느슨해질 수 있는데, 오늘 복음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추스르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루카 9,51). ‘올라가신다’는 것은 승천을 의미하지만,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당신의 사명만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십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굳히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은 ‘자신의 얼굴을 그 방향으로 고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감하고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결연한 자세와 비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들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루카 9,54) 하고 여쭙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루카 복음에서 사람들의 배척은 예수님의 운명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이기도 합니다(루카 9,51-56).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고향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고(루카 4,16-30),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마지막 시점에서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루카 19,28-40).

주님의 운명이 그러하듯, 주님 따르기는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루카 9,58). 예수님은 편히 쉴 곳조차 없이 동물들보다도 못한 처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친척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마르 3,21).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뿐입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지내고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며,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로마 14,9)이신 예수님은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하라고 단호히 대답하십니다.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루카 9,60).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보다도 훨씬 더 엄하게 요구하십니다. 엘리야는 쟁기질을 하던 엘리사가 부모와 작별인사를 하도록 허락했지만, 주님은 “쟁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 9,62)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고정하시고(루카 9,51)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은 한가한 소풍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숭배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 김영국 요셉 신부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창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이호미 엘리사벳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데레사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자리아	황지영 안젤라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 동 1, 3반	제물봉헌자			토 북 1,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4,523단 ☞ 총 합계: 147,622단

7월



- ◆ 7월4일 독립기념일에 수요 저녁미사가 없습니다.
- ◆ 병자영성체: 5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5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토렌스 남구역 진행
- ◆ 성모신심미사: 7일(토), 오후 7시30분
-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5일(목), 오후 7시30분

- ◆ 주일 9시30분 학생미사 방학
 - 7월15일(주일)~9월23(주일)까지

- ◆ 주일 학교 Summer Camp
 - Camp출발: 13일(금) 오후1시
 - 성당 도착: 7월15일(주일), 오후5시 도착
 - Whispering Winds, Julian, CA (Food, Cabin 제공됨)
 - 준비물: 침낭, 세면도구, 손전등, 긴팔, 긴바지, 운동화

- ◆ 첫고해
 - 7월8일(주일), 오전 10시30분
 - 대상: 6월9일 세례받은 주일학교 학생

- ◆ 백삼위 신앙학교 제4단계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7월10일까지), 성전
 - 본당신부님 주일 강론 및 신앙학교 Cassette Tape이 사무실에 준비되었습니다.

- ◆ 어린이 복사단 모집
 - 대상: 초등부 3학년~6학년(첫 영성체 받은 어린이)
 - 신청: 7월15일(주일)까지 수녀님이나 사무실에 신청
- ◆ 남성 제 27차 꾸르실료 환영식 및 울뜨레아 모임
 - 오늘 주일, 오후 7시30분, 강당
 - 수강자: 배재일(미카엘), 서병교(라파엘), 천광락(야고보)
 - 봉사자: 황철수(베드로), 이크리스(아가톤)
 - ※백삼위 꾸르실리스타는 전원 참석바랍니다.
- ◆ 수요교리반 받아들이는 예식
 - 7월11일(수), 오후 7시30분 미사 중
 - ※서완우 형제의 세례식도 있습니다.
 - ※대부/모님들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 ◆ 목요교리반 개강 및 예비자 모집
 - 환영식: 7월15일(주일), 낮 미사 후 강당
 - 교리시작: 7월19일(목) 오후 8시, 2층 교리실
 - ※새 교리반에 많은 예비자를 인도 합시다.

☞ 감사합니다. ☞

- ◆ 2005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 해 주신 유철희(바오로) 본당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1일부터 본당 총회장으로 오세원(야타나 시오) 형제님이 임명되었습니다.
- ◆ 2002년 12월부터 4년 7개월 동안 본당 사무장으로 일 해 주신 박진향(테레사)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2일부터 신임 사무장은 홍석인(체칠리아) 자매입니다.
- ◆ 수요교리반 정완서 형제님께서 회관 2층 각 교실과 복도 Carpet Cleaning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백삼위 골프회에서 지난 5월 본당신부님배 골프대회를 통해 주일학교 고등부 신앙대회 후원금으로 \$1,200을 모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구분엽 김관기 김광자 김대우 김옥보 김정웅 김철수 박기돈 박상준 박순자 박인식 박희자 신대식 오세정 오 진 이기성 이석진 이재정 이종한 임종택 정연영 정열모 조소영 조화숙 최기남 최길주 최미열 최상규 최상만 한소옥 한연만 한혁수 황인중	성전헌금	강숙경 구분엽 김관기 김광자 김대우 김옥보 김철수 박기돈 박상준 박순자 박희자 신대식 윤희동 이재정 이종한 임종택 정연영 조화숙 최기남 최길주 최미열 최상만 한연만 한혁수 황인중
합계 : \$4,500		합계 : \$3,550	
미사헌금 \$ 2,767.17		감사헌금 박진수	

공지사항

◆ 신약성경 특강

- 7월23일(월)~27일(금), 매일 저녁 7시30분
- 제목: 바오로 서간과 요한복음
- 강사: 손삼석(요셉) 신부, 전 부산가대총장, 성서학박사
- 대상: 남가주 전신자
- ※ 7시30분에 미사를 드린 후 강의를 시작합니다.

◆ 백삼위 골프회 7월 정기 Tournament

- 7월14일(토) 오전 10시, Brookside Golf Club #2, Pasadena
- 문의: 최기남 야고보 569-3940
- 크리스 리 부동산에서 상품 5점을 기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7월 1일: 소공동체 (김밥 \$3.50, 떡 \$4)
- 7월 8일: 토렌스 동 2반 (김밥 \$3.50)

남가주 소식

◆ 제16차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8월3일(금)~5일(주일)
- Mary Joseph Retreat Center, 5300 Crest Rd., R.P.V.,
- 대상: 22~35세 미만의 미혼 남녀
- 신청마감: 6월30(토) ● 참가비: \$150
- 문의: 남가주 선택 협의회 (714)713-0131

◆ 골수 기증자를 찾습니다.

- 환자: 유지원 (Elyse Yu, 2/1/07 출생, 세 쌍둥이 중 첫째)
- 지난 5월에 혈액 탐색성 림프 조직구 증식증(HLH)이라는 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혈액 질환을 완치하는 방법은 골수 이식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 후원금접수: New Life Community, c/o ElyseFund
846 S. Union Ave., L.A., CA 90017
- 골수기증: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 (A3M) (888)236-4673
미국 골수 기증협회(NMDP) (888)999-6743

◆ 청소년들을 위한 제3차 Summer 영성 피정

- 8월16일(목)~19일(주일) ● 지도: 이유진 신부님
- 대상: 9학년~12학년 ● 참가비: \$110
- 신청문의: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반장 모임 오후 1시, 강당

다음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오후 1시, 각 방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한길선레 스텔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텔라스타카 782-1025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형제반 1제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제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한나 720-7898 7/17(화) 오후 12시, Hickory Park
	3	임형미 사비나 408-3835	임형미 사비나 408-3835 7/13(금) 오후 7시,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	박정희 마리아 715-2609	박정희 마리아 715-2609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김희복 아네스 326-2283 7/14(토), 오후 7시30분,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370-6589 7/10(화),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홍정란 클라라 544-6290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성화의 날' (2007년 6월 15일) 서한 요지

그리스도 사랑의 보편적 증인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제는 그리스도 사랑의 보편적 증인입니다.'란 주제의 올해 사제성화의 날은 우리가 모든 신자들과 전 인류를 향한 사제들의 사목적 관심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사제 직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볼 좋은 기회입니다.

사제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느님을 인류에게 모셔오는 것'이며, 사제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제는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직접 알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우정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느끼셨던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느끼는 '하느님의 사람'(1티모 6,11)이 되어야 합니다. 사제 생활에서 이러한 초점을 상실하면 사제 활동 전체의 기초가 무너지고,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목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 받습니다. 사제의 현존 자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리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사제는 떨어져 나간 가톨릭 신자들과 그리스도에 관해 거의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리교육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세계 문화의 다른 새로운 광장들(areophagi)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론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에 더해 전자우편과 인터넷 사이트, 웹사이트와 화상대화, 그 밖의 최근 방식들을 자주 활용해야 합니다.

사제는 주교와 친교를 이루어 모든 곳에서 생명의 문화를 복돋워야 하며, 평신도들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직접 짊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제는 각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유기적인 가정 사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가정을 지원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로 하느님 사랑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는 남녀 간의 혼인이 지닌 유일한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당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는 더욱 분명한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전례 거행을 쇠신합시다. 말씀과 성사로 이루어진 우리의 사목 활동에서, 우리는 행동을 휘하여 행동하는 행동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분의 자리도 없는 비성직주의와 세속주의의 공격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수품 사제들만이 본당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젊은 많은, 건강하던 병들었던 모든 사제는 자신의 성품 직무에 고유한 특성에 따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는 선물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사제들의 우리의 참다운 존재론적 신원을 밝히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우리의 신원에서 비롯되는 선교 직무를 열심히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성소는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수단들을 가지고 성소자들이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그 활력과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변영과 새로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 교황청 성직자성 / 장관 클라우디오 우메스 추기경 / 차관 마우로 피아첸차 대주교